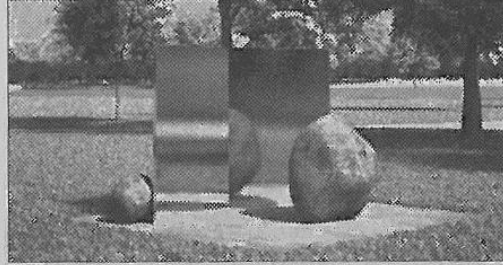


82세 화가 이우환 신작 서펜타인 갤러리 전시

February 9, 2018 | 이은주 기자

82세 화가 이우환 신작 서펜타인 갤러리 전시



이우환(82) 화가의 신작 ‘Relatum-Stage(관계항-무대·사진)’가 런던의 세계적인 미술기관인 서펜타인 갤러리 야외공간에 전시됐다. 이번 작품은 서펜타인 갤러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로, 갤러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아니시 카푸어, 마이클 크레이크-마틴, 알렉스 카츠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왔다. 이 작가의 ‘Relatum-Stage’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‘Relatum’ 연작의 하나다.

6일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이 작가와 서펜타인 갤러리 디렉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 행사가 열렸다. 이 행사에서 이 작가는 “작품을 통해 자연과 주변 공간, 다른 물질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장을 표현하고 싶었다”고 말했다. 작품은 7월 29일까지 전시된다. 이은주 기자

julee@joongang.co.kr



이우환